

구례 운조루(雲鳥樓)의 건축적 특성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Unjoru House in Gurye

장 선 주*
Jang, Sun-Joo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how the problems, which existing letter-shape houses have, are solved in Unjoru which is one of the letter-shape houses. Furthermore, there is the secondary purpose which is to realize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Unjoru through the process from the composition of rooms and buildings to the method of structure and roof formation. This research was approached in term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as the resul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letter-shape houses was resolved by literally converting the shape of outdoor space to 品-shape form. Moreover through the result, it was recognized that the 占-Shape plan was flexible in responding to the demand of the times, such as the order of precedence within men and women and each generation. In addition to the previou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location of major rooms was also decided by considering the interrelationship with natural environment of surrounding area. Also, in the whole proportion of building's plan, each building, such as ㄱ-shape Anchaeh and big-sized and middle-sized Sarangchae having ㄷ-shape form, and major rooms in the each building have proportion system such as 1:1, 3:4, $1:\sqrt{2}$, and 3:5 as aesthetic numerical value. Finally, it was understood that the architectural intention had double-sided characters, one side was authority and dignity in the aspect of shape and another side was practicality in aspect of inner housing life.

Keywords : Unjoru, Letter-Shape, 品-Shape, 占-Shape

주요어 : 운조루, 문자형, 品자형, 占자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운조루는 18세기 살림집으로 ‘占’자형의 주건물을 행랑채와 담장으로 에워싸 ‘品’자형의 배치틀 이루는¹⁾ 문자형(文字形) 주택에 속한다. 이는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口’자형 주택이 확장된 것으로 기본적인 ‘口’자형 단위들이 ‘品’자형의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조루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첫째, 운조루의 가내에 소장되어 있는 중요 건축사료를 기초로 운조루의 창건배경 및 조영규모에 따른 조선조 후기 주택사적 특징을 고찰한 것²⁾, 둘째, 오미동가도(五美洞家圖)를 통해 관찰자의 시점과 시선 및 동선의 계시적(繼時的) 연속성 등 운조루의 공간구성을 고찰한 것³⁾, 셋째, 공간구문론을 사용하여 지리적, 자연환경적, 역사적 그리고 사회사상적인 배경의 차이가 영·호남 전통주택의 공간구조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 것⁴⁾ 등이 있다. 이 같은 운조루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주거사적 측면, 시지각적인 측면, 공

간구문론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경향이 있으며 배치, 평면 및 구조방식 등을 기본으로 한 설계적 측면에서 접근된 경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설계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운조루가 기존의 문자형태를 지닌 상류주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며 당시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파악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으며 더 나아가 실과 채의 구성에서 가구방식 및 지붕구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운조루가 지닌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차적 목적이 있다.

1) Choi, S. Y., Kim, K. H., & Hong, D. H. (2001).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Unjoru showed in The Family hereditary Drawing Oh-Mi-Dong-Ga-Do.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7(11), 134.

2) Park, I. S. (1998). A Study on the History of House in Gurye: Mainly the literature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changes of the spac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4(2), 195-206.

3) Choi, S. Y., Kim, K. H., & Hong, D. H. (2001).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Unjoru showed in The Family hereditary Drawing Oh-Mi-Dong-Ga-Do.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7(11), 133-140.

4) Chang, D. G. (2002). Decoding Korean Traditional High-class Houses in Youngnam and Honam Region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8(11), 125-132.

*정회원(주거자,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Sun-Joo, Jang, Dept. of Architecture, Chungbuk Natl. Univ., 52 Naesudong-ro, Heungdeok-gu, Cheongju, Chungbuk 361-763, Korea. E-mail: room-70@hanmail.net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구례 운조루의 건축적 특성을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 창건주인 유이주와 입지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운조루와 같은 문자형 주택과 ‘口’자형에 채들을 곁달은 상류주택의 사례들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풍수적 의미로 접근된 문자형 주택의 문제점을 살피고 ‘口’자형에 채들을 곁달은 주택의 평면과 운조루 평면을 비교분석하여 운조루 설계의 문제해결방법과 사랑채의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해 파악한다. 둘째, 오미동가도(五美洞家圖)와 운조루의 배치계획을 비교분석하여 운조루의 주요실과 주변자연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동시에 운조루 배치구성의 기하학적 질서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ㄷ’자형의 안채, ‘丁’자형의 큰사랑채와 중간사랑채 등의 평면과 각 채들에 의해 구성된 ‘占’자형의 평면을 고찰하여 실, 채 그리고 전체 평면윤곽 등에 나타나는 비례체계에 대해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기둥, 보 시스템으로 결정되는 가구방식 및 지붕구성 등에 대해 고찰하여 기존의 가구방식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가부장제하에 가장의 권위와 주거의 실용적 문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 파악한다.

II. 운조루에 대한 기초적 고찰

1. 창건주 유이주(1726-1797)와 입지배경

운조루의 창건주인 유이주(柳爾胄)는 文化柳氏로서 1726년 경북 안동군 해안면 입석동에서 출생했으며 17세 되던 해에 상경하여, 28세 되던 영조29년(1753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의 관직은 낙안군수와 삼수부사와 같이 주로 지방수령내지 대규모 국가조영사업의 책임자였으며 조선실록에 의하면 남한산성과 함흥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영성축조와 원역(園役)에 참여하였다. 이 같은 그의 관직과 경력은 건축공사에 깊은 이해를 가져왔다고 보여지며 기록⁵⁾에 의하면 운조루 건립 시 자신이 보내준 건축도면을 통해 공사 진행을 세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이주의 행적을 기록한 삼수공행장(三水公行狀)을 보면 구례 오미동으로의 입지배경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1773년 낙안군수시절 낙안세곡선이 한양으로 가던 중 침몰한 책임을 물어 함경도 삼수땅으로 유배되었고 삼수유배에서 돌아와 가족들을 이끌고 좋은 땅을 찾아 타향인 구례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다. 구례 오미동 주위 일대는 풍수지리적 해석에서 볼 때 잘 갖추

어진 형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부터 금귀몰니(金龜沒泥)의 길지로 알려진 점에서 세인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운조루를 건립할 당시 유이주는 낙안군수(지금의 순천 부근)를 역임한 후였고 상주영장을 지내는 시점이었으므로 구례 지역의 풍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운조루의 창건과정에서 운조루 터에 대한 유이주의 풍수지리적 관심은 윤사국(1728-1809)이 쓴 유이주의 행장기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⁶⁾ 이와 같은 유이주의 건축공사에 대한 활발한 경력과 풍수지리적 입지관을 볼 때 운조루의 터잡기에서 대저택의 조영에 이르기까지 유이주가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文字형 주택⁷⁾과 안마당

주택의 文字형은 그 주택의 형태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생활의 결과인 길흉을 예고하고 가문의 미래를 상징하는 기치가 되는 것으로⁸⁾ 문자형 주택으로 불리는 예들로 ‘用’자형의 임청각(1515년경), ‘日’자형의 향단(1540년경), ‘巴’자형의 내앞종가(1587년 중건) 그리고 ‘品’자형의 운조루(1776년) 등이 있다.⁹⁾ <Figure 1>에서 보듯이 상류주택의 원형이라 불리는 서백당(1457년) 안마당은 3×3칸(7,435×7,325 mm) 크기를 지나 안방을 중심으로 평면이 구성되는 향단의 경우 안마당 규모는 2×2칸(4,375×4,986 mm)으로 매우 협소하다. 또한 안마당을 중심으로 평면이 구성되는 임청각 안마당 규모는 안대청보다도 작은 2×2칸(6,338×6,392 mm)이며 내앞종가는 3×2.5칸(6,890×5,910 mm) 크기의 안마당을 지닌다. 이와 같이 ‘口’자형 주택이 확장되어 평면윤곽이 문자형태를 지니는 문자형 주택 안마당은 매우 협소하며 현실적으로 쓰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즉, 내부가 좁아서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채광의 어려움으로 집안이 그늘 속에 갇히고 습기가 오래 남으며 해가 짧은 겨울에는 일조량이 더욱 적어져서 춥기 마련일 수 있다.¹⁰⁾

6) 김왕직(2008). 구례 운조루의 창건과 변천에 관한 연구(자료), 건축역사연구, 17(4), 183 참조. 사람들이 이 터를 본디 이쁜남 吉地라 하였으나 바위가 험난하여 힘이 들므로 감히 터를 잡지 못하였다.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하늘이 아끼고 땅을 숨겨둔 곳이 나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수백 명의 장정을 동원해 몇 일만에 집터를 닦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7)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정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口’자형 주택으로 보며, 이를 기준으로 ‘口’자형 단위가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여러 개의 중정이 형성되는 방식을 ‘口’자형 주택의 구성 원리로 보며, 이렇게 구성된 주택을 총칭하여 문자형 주택이라고 한다.

8) Jang, B. K., & Cho, S. K. (2001). A Study on the Meaning of Letter-Shaped House plan and the Housing principles of the Imchonggak in Andong.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10(3), 26.

9) 김광인(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서울:민음사, 28.

10) 김광인(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서울:민음사, 28-29. 문자형의 평면구성은 다만 풍수적인 의미를 지닐 뿐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도외시 된 경우가 많다고 기술하고 있다.

5) 유제양(1846-1920)의 일기 『是言』 중 1868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중조때의 丙申年이 이백년에 가까운데 성조일기(成造日記)에 손수 적기를, 황무지를 일궈 터를 닦은지 7년만에 기와집 100여칸을 지었다 하였다. 당시 高祖(유이주)께서는 豊川과 龍川府使에서 일을 보고 계셨는데 집의 도면을 주어 집을 짓도록 명하여 한 치도 틀림이 없도록 하였다. 아버지가 명하고 아들이 이루었으니 그날이 丙申年 가을 9월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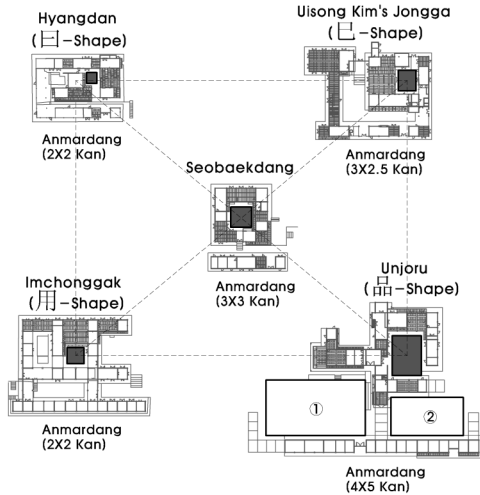


Figure 1. Letter-Shaped Houses & Anmardang

그러나 운조루는 ‘口’자형 기본단위가 각 마당을 독립적으로 에워싸므로써 만들어진 형태 즉, 큰사랑채와 서측 행랑 사이에 구획되는 사랑채 영역, 안채와 안마당 영역, 동측행랑과 안채 남측 안사랑이 구획하는 안사랑영역 등, 기본적인 ‘口’자형 단위들이 ‘品’자형의 배치를 이룬다. 그리고 이 같은 구성은 기존의 문자형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즉, 4×5칸(9,906×12,306 mm)의 안마당, 서측의 큰사랑마당(①) 그리고 동측의 안사랑마당(②)이 ‘品’자형을 이룬 것으로 외부공간이 문자형태가 된 것이다. 이처럼 운조루는 평면형이 아닌 외부공간의 형태를 통해 풍수적 의미를 실현시키면서 기존의 문자형 주택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한 계획의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 경우라 여겨진다.

3. ‘口’자형에 결달린 사랑채의 위치와 규모

전라도 지역에 위치한 운조루는 호남지역에서는 매우 드문 ‘口’자형에 사랑채를 결달은 사대부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안채는 유교적 절제와 논리가 중시된 영남의 양진당과 충효당과 거의 유사한 형식을 지닌다.¹¹⁾ 정인국은 대문을 들어서서 상류주택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주택으로 안동 양진당, 구례 운조루, 경주 최준씨 가옥을 들고 있다.¹²⁾ 이와 같은 운조루의 평면구성은 두 가지의 입장에서 정리되고 있다. 창건주 유이주가 경북 안동 출신인 이유로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 즉, ‘口’자형 주택에 사랑채가 결달린 형식을 채택했다는 입장과 조선시대 상류주택들의 기본 배치형식이 ‘口’자형인 것은 당시의 사회통치이념 및 사상이었던 유교질서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¹³⁾ 어쨌든 운조루 평

면은 ‘口’자형을 기본으로 하여 변형과 확대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2>에서 보듯이 ‘口’자형의 모서리 우측에 좌우2칸의 사랑영역이 위치한 서백당을 기준으로 관가정(1514년)은 ‘口’자형의 전면부 좌측으로 확장시켜 4칸 규모의 사랑영역을 지닌다. 양진당(1600년대)은 ‘口’자형 안채의 우측에 좌우5칸 규모의 사랑채를 한 칸 뒤로 물려서 결달고 안채 앞의 행랑채를 사랑채 앞까지 연장시켜 ‘ㄷ’자형의 사랑마당을 구획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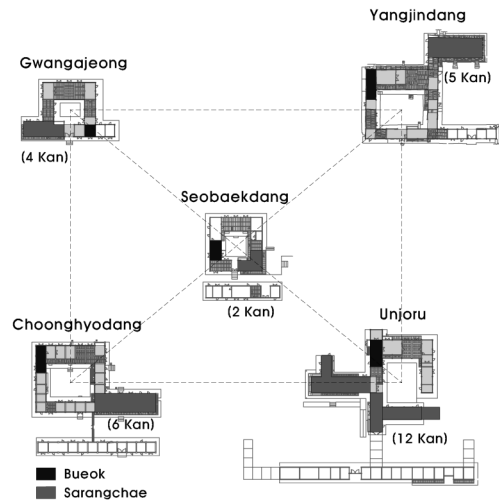


Figure 2. The Position & Size of Sarangchae

충효당(1600년대)은 ‘口’자형의 전면부 우측으로 좌우6칸 규모의 사랑채를 결달고 좌측으로는 행랑채를 위치시켜 사랑마당을 구획한다. ‘口’자형에 후면부, 전면부, 측면부로 사랑채를 결달아 내고 있는 관가정, 양진당 및 충효당의 경우처럼 운조루 또한 ‘ㄷ’자형 안채 좌측부에 좌우5칸의 큰사랑채와 전면부 남측에 좌우5칸의 중간사랑채와 2칸의 안사랑채를 결달아 좌우 12칸의 사랑영역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사랑채 좌우평균 칸 모듈을 살펴보면 서백당 2,710 mm, 관가정 2,570 mm, 양진당 2,724 mm, 충효당 2,589 mm, 운조루 2,972 mm로 좌우 12칸으로 사랑채의 규모가 가장 큰 운조루가 평균 칸 모듈도 가장 큼을 알 수 있다.¹⁴⁾ 또한 관가정, 양진당 및 충효당의 평면형태가 구체적인 문자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과는 달리 운조루는 ‘ㄷ’자형의 구체적인 문자형태를 갖추었다. 이 같은 ‘ㄷ’자형 안채의 동서남측방향으로 사랑영역을 결달은 운조루는 좌우 12칸의 사랑영역 모두 전면부에 위치한다.

11) 문화재청(2007). 구례운조루(중요민속자료 8호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대전:문화재청, 23.
 12) 정인국(1997). 한국건축양식론. 서울:일지사, 436.
 13) 국립목포대학박물관(1999). 구례군의 문화유적 전라남도 구례군. 목포:국립목포대학, 418.

14) 각 주택의 칸 모듈은 문화재청(2008). 양동 서백당 기록화보고서(중요민속자료 제23호 기록화보고서). 대전:문화재청, 문화재청(2001). 관가정 실측조사보고서(중요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21호). 대전:문화재청, 문화재청(2000). 안동 양진당 실측조사보고서(중요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11호). 대전:문화재청, 문화재청(2001). 안동 충효당 실측조사보고서(중요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23호). 대전:문화재청. 참조.

또한 <Figure 2>에서 보듯이 사랑영역의 경우 안방에 인접한 부엌의 위치와 최대한 거리를 두어 남·여 영역을 분리하고 있는 다른 주택들과는 달리 운조루는 사랑채가 부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부엌에서의 접근 동선이 짧다.

III. 운조루의 건축적 특성

1. 배치구성상의 특성

1) 오미동가도와 배치계획

운조루가 위치한 구례 오미동은 지리산의 노고단이 조산(祖山)이 되고 노고단에서 남쪽으로 빠져 내려와 형성된 형제봉이 주산(主山)이 된다. 앞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지고 들 앞에는 섬진강이 있으며 섬진강 건너 오봉산이 안산(案山)이 된다. 그 너머 계족산이 조산(朝山)이 된다. 동쪽으로는 왕시리봉이 좌청룡이 되며 서쪽으로 천왕봉이 우백호가 된다.¹⁵⁾ 이와 같은 배산임수의 명당터는 운조루의 창건당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인 전라구례오미동가도에 묘사되어 있다. 1800년대 전후해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미동가도는¹⁶⁾ 투시도처럼 어느 한쪽의 시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시선을 모두 고려하면서 부분적인 특징을 무시하지 않는, 여러 장면이 콜라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선은 집밖이 아니라 집안에 있다.¹⁷⁾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이 중첩되어 그려져 있는 그림이다.¹⁸⁾ 기록화의 목적을 가진 이러한 그림기법은 배치도의 형식과 입면도 형식을 같이 지닌 것으로 물체와 경관을 표현하는 원근법이나 부감법(俯瞰法)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四方向성을 갖는다. 각 표현요소는 위치와 배경에 의해 장소 변화를 나타내는 多方向 시점으로 볼 수 있다.¹⁹⁾ 운조루가 건립되고 17년 후인 1793년 68세의 유이주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했던 기록인 장자구처기(長子區處記)의 내용이 그대로 오미동가도에 표현되어 있으며²⁰⁾ 이 오미동가도를 살펴보면 주인의 거처실로서 상류주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큰사랑방이 가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대문간과 일직선상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큰사랑채의 누마루는 주산인 형제봉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등지고 위치하고 있으며 안방은

안산인 오봉산 너머 조산인 계족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와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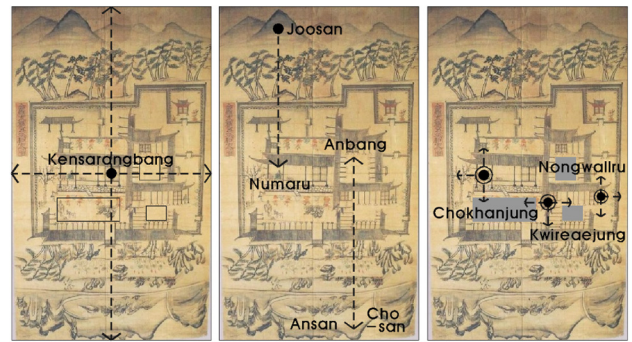


Figure 3. Oh-Mi-Dong-Ga-Do & Site Planning

이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배치기법 중 하나인 안대축이²¹⁾ 운조루의 배치계획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공간도 ‘品’자형의 문자형태를 이루며 운조루의 전면부에 큰사랑채의 족한정, 중간사랑채의 귀래정, 안사랑채의 농월루라는 3개의 누마루도 보인다. 이처럼 운조루의 배치계획은 <Figure 3>에서 보듯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특히 주요 실인 큰사랑방, 안방 및 누마루 등이 자연과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지니며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자형태와 배치구성

운조루는 평면형에서 비롯된 문자형태를 ‘品’자형이라는 외부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풍수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주거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안마당의 협소한 크기와 채광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처럼 문자형의 하나인 ‘品’자형의 외부공간은 ‘ㄷ’자형의 안채, ‘丁’자형의 큰사랑채와 중간사랑채가 결합된 ‘占’자형의 평면에 행랑채가 결합된 것으로 안마당, 큰사랑마당, 안사랑마당으로 구성된 것이다. 운조루의 각 마당은 <Figure 4>에서 보듯이 채와 담장에 의해 에워싸으로써 독립성과 영역성을 확보하고 있다. 운조루의 평면형태인 ‘占’자형은 ‘ㄷ’자형에 큰사랑채, 중간사랑채 및 안사랑채 등이 확장된 것으로 이것은 당시 대가족 제도, 가부장적 제도에서 장유유서의 개념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부장을 위한 큰사랑방과 족한정(큰사랑채), 장자를 위한 사랑방과 귀래정(중간사랑채), 은거하는 조부모를 위한 안사랑

15) Choi, S. Y., Kim, K. H., & Hong, D. H. (2001).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Unjoru showed in The Family hereditary Drawing Oh-Mi-Dong-Ga-Do.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7(11), 133.

16) 박익수(1994). 구례 운조루의 조영에 관한 사료적 고찰. 건축연사연구, 3(2), 207 참조. 1800년 전후해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

17) 김광현(1997.09). 오미동가도. 서울: (주)건축문화, 227.

18) 송인호(1997.09). 옛 그림에서 읽는 건축. 서울: (주)건축문화, 197.

19) 천득염(1997.09). 소쇄원도. 서울: (주)건축문화, 205.

20) 장자구처기에는 서행랑 12칸, 대문 1칸, 동행랑 12칸으로 전면부의 좌우칸수가 25칸이며 서행랑 3칸, 동쪽침사 3칸, 하외사 4칸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오미동가도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있다.

21) Chong, S. H. (1987). Geomantic principles of site design in upper-class houses of Chos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Yonsei, Seoul, 30. 전통주택의 안대 설정에 대해 정성현은 주방(주거 내에서 가장 높고 큰 채의 높고 큰 방)은 가족의 가장이 머무는 방으로서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경우 사랑채의 사랑방이 주방이 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각 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건물들의 경우에는 그 마당을 중심으로 한 건물의 주방이 있다고 함으로써 안채의 안방과 사랑채의 사랑방이 주방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방과 농월루(안사랑채)가 그것이다.²²⁾ 또한 사랑영역이 운조루의 전면부에 위치함으로써 주요 실의 개방적 조망권 확보와 남향 배치가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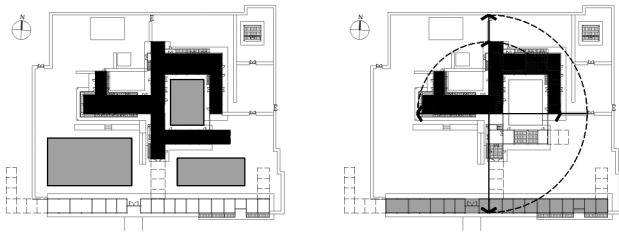


Figure 4. 占-Shaped Plan & 品-Shaped Outdoor Space

이처럼 ‘占’자형 평면은 당시의 가족제도 및 시대의 요구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향과 조망이라는 주거환경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평면형태로 여겨진다. 그리고 ‘占’자형 평면을 배치 구성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Figure 4>에서 보듯이 운조루의 전체영역 중 전후영역을 한정짓는 후면 담장과 전면 행랑채의 중심부에 큰사랑채와 ‘ㄷ’자형 안채 날개채의 전면 기둥열이 위치한다. 그리고 ‘占’자형 평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큰사랑채와 안채 영역이 좌우방향으로 서로 나뉘며 이를 중심으로 서측의 큰사랑채와 동측의 안채 그리고 북측의 돌출된 부분 등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처럼 운조루의 배치구성, ‘占’자형 평면과 평면을 구성하는 각 채들의 규모 및 위치 등이 기하학적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간형태구성상의 특성

1) 칸 모듈과 평면윤곽

안채는 안방, 대청, 건넌방 등의 안몸채와 부엌, 방, 광 등의 좌우 날개채로 구성되는 ‘ㄷ’자형 윤곽을 지닌다. 좌우6칸 전후5칸의 칸 모듈은 <Table 1>에서 보듯이 불규칙적이다. 좌우날개채 중 중간사랑채와 연결되는 좌측 날개채 X1(3,062 mm)은 X6(2,784 mm)보다 크며 큰사랑채와 연결되는 Y1은 한 칸의 크기가 4,073 mm으로 매우

크다. 그러나 이처럼 부분으로서의 칸 모듈이 불규칙적임에도 <Figure 5>에서 보듯이 ‘ㄷ’자형의 전체 평면윤곽비는 전후좌우 칸 모듈이 15,752×15,927 mm로 1:1의 정방형 비를 지닌다. 그리고 주요 실인 안방은 3:4(4,964×3,715 mm), 안대청은 1:1(4,942×4,640 mm)의 평면윤곽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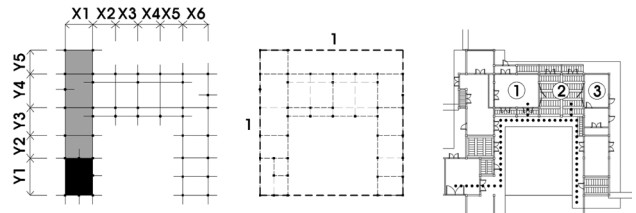


Figure 5. Anchae: Kan-Module & The Outline of Plan

운조루 사랑채는 서측의 큰사랑채와 남측의 중간사랑채로 나누어져 있다. 예전에는 중간사랑채 동측으로 안사랑채가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큰사랑채는 방, 대청, 누마루, 부엌 등으로 구성되는 ‘ㄷ’자형을 이룬다. 궁전침전에서와 같이 완전한 누마루 형식을 취하고 여기에 다시 일반대청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사랑채의 경우 보통 큰 부엌은 없는 법인데 안채로의 통로까지 겸한 큰 부엌이 마련되었으며²⁴⁾ 이는 생활상의 기능적 측면이 강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좌우5칸 전후3칸의 칸 모듈은 <Table 2>에서 보듯이 한 칸의 크기가 2,473 mm에서 4,323 mm로 매우 불규칙적이거나 ‘ㄷ’자형의 전체 평면윤곽비는 전후좌우 칸 모듈이 14,867×9,313 mm로 3:5의 윤곽비를 지닌다.²⁵⁾ 주요 실인 큰사랑방(隨分室, 스스로의 分福을 따른다.)의 경우 규모는 한 칸이나 크기는 4,328×4,013 mm로 1:1.1의 비를 지니며 한 칸의 크기로는 상류주택 중 가장 큰 것이기도 하다. 대청(雲鳥樓, 구름 속에 새처럼 숨어있는 집)은 1:1.2(4,953×4,013 mm), 누마루(足間亭, 한가로움이 머무는 정자)는 3:5(2,526×4,013 mm)의 윤곽비를 지닌다. 이처럼 부분으로서의 칸 모듈은 불규칙적이거나 전체 평면윤곽비는 3:5의 기하학적 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6>. 그리고 전면부의 큰사랑방,

Table 1. The Kan Module²³⁾ & Room Size of Anchae (mm)

	Kan module		Room size		
	Beam direction	Dori direction	① Anbang	Size	
Anmomchae	X1 (3,062), X6 (2,784)	X2~X5 (2,494 2,470 2,472 2,470)	② Teachong	2×1.5 Kan	4,964×3,715
	Y4(4,640/1,695+2,945)	Y1~Y3, Y5 (4,073 2,489 2,125 2,600)		③ Gennenbang	2×2 Kan
Nalgechae	Y4(4,640/1,695+2,945)	Y1~Y3, Y5 (4,073 2,489 2,125 2,600)	③ Gennenbang	1×1.5 Kan	2,784×3,715

The outline of ㄷ-shaped anchae - 1:1
Anbang & Gennenbang - 3:4/Teachong - 1:1

22) 박영순외(1998). 우리 옛집이야기. 서울:열화당, 44.

23) 운조루와 관련된 모든 칸 모듈은 문화재청(2007). 구례운조루. 대전:문화재청을 참조한 것이다.

24) 정인국(1997). 한국건축양식론. 서울:일지사, 403.

25) 문화재청(2007). 구례운조루(중요민속자료 8호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대전:문화재청, 21. 운조루의 형태를 학과 같이 목이 긴 새가 비상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으며 머리 부분에 이 가옥의 주인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Table 2. The Kan Module & Room Size of Kensarangchae (mm)

Kan module		Room size		
Horizontal direction	X1~X5 (2,526 2,473 2,480 4,323 3,060)	① Kenbang	Size	
			1×1 Kan	4,328×4,013
Vertical direction	Y1~Y3 (4,013 2,482 2,818)	② Taechong	2×2 Kan	4,953×4,013
		③ Numaru	1×2 Kan	2,526×4,013

The outline of T-shaped kensarangchae - 3:5
 Kensaranbang - 1:1.1 / Taechong - 1:1.2 / Numaru - 3:5

대청, 누마루의 문은 들어열개문으로 필요에 따라 하나의 개방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가변적인 구성으로 계획되었으며 누마루 바닥은 대청보다 430 mm 정도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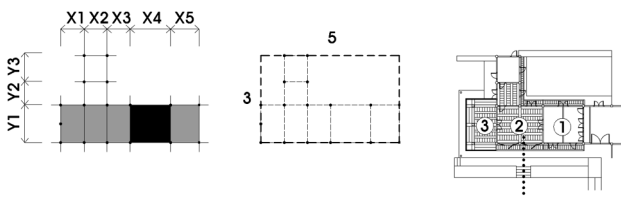


Figure 6. Kensarangchae: Kan-Module & The Outline of Plan

‘ㄷ’자형의 안채 전면부에 위치하는 중간사랑채는 ‘ㄷ’자형을 이룬다. 중간사랑채는 방(滌樂窩, 즐거움이 고이는 집), 누마루(歸來亭), 부엌, 마루방, 광으로 구성된다. 좌우 5칸 전후3칸의 칸 모듈은 <Table 3>에서 보듯이 불규칙적이다. 즉, 안채 좌측날개채와 연결되는 X1(3,094 mm)이 좌우 5칸 중 가장 크며 안마당의 깊이방향 크기에 관여하는 Y3(3,622 mm)이 주요 실인 사랑방(3,101 mm)과 누마루(3,149 mm)보다 크다. 이처럼 부분으로서의 칸 모듈이 불규칙적이거나 ‘ㄷ’자형의 평면유평비는 3:4, 방과 누마루는 1:1의 정방형 비를 지닌다<Figure 7>. 그리고 큰사랑채의 족한정이 개방되었다면 중간사랑채의 귀래정은 벽채와 분합문에 의해 4면이 폐쇄되어 방과 소통하면서도 독립된 실로 계획되었다.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오미동가도와 오미동와가구시전도(五美洞瓦家舊時全圖)를 참고하면 안사랑채는 방과 누마루(弄月樓)로 구성되며 귀래정처럼 ‘口’자형 유평에서 동측으로 한 칸 돌출되어 누마루를 위치시켰다.²⁶⁾ 『樓觀條』 등의 문헌을 통해 상류주택의 누

마루가 기능적 요구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왕궁이나 사찰의 누건축을 모방한 것²⁷⁾이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족한정, 귀래정, 농월루라는 세 개의 누마루 설치의 운조루의 권위와 부를 동시에 상징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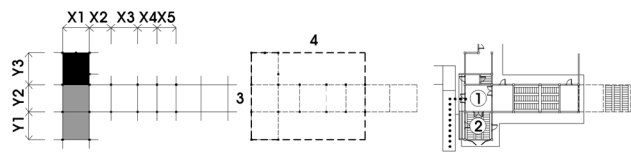


Figure 7. Jaceunsarangchae: Kan-Module & The Outline of Plan

2) 미적 수치의 평면유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분으로서의 칸 모듈은 불규칙적이거나 부분이 모여 구성된 각 채와 ‘ㄷ’자형의 전체 평면유평비는 미적 수치의 비례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ㄷ’자형 안채 평면유평비는 1:1의 정사각형, ‘ㄷ’자형 큰사랑채는 3:5, 중간사랑채와 ‘ㄷ’자형 전체 평면유평비는 3:4 그리고 ‘ㄷ’자형 평면에서 남, 북, 서측으로 돌출된 각 한 칸을 제외한 평면유평비는 1:√2의 비를 지닌다. 또한 채의 평면유평비를 구성하는 주요 실의 유평도 미적 수치의 비례체계를 지니고 있다. 안채의 안방은 3:4 안대청은 1:1 큰사랑채의 누마루인 족한정은 3:5 중간사랑채의 방과 누마루인 귀래정은 1:1의 정방형 비를 지닌다. 이와 같은 운조루의 주요 실에서 각 채 및 ‘ㄷ’자형의 전체 평면유평이 정사각형, 1:√2,²⁸⁾ 3:4, 3:5의 비를 지니며 이것은 건축가 팔라디오의 1570년 저서 『건축4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을 가장 아름답고 비례에 맞게 만드는 기법” 7가지의 제안인²⁹⁾ 원, 정사각형, 1:√2,

Table 3. The Kan Module & Room Size of Jaceunsarangchae (mm)

Kan module		Room size		
Horizontal direction	X1~X5 (3,094 2,451 3,033 2,224 2,179)	① Bang	Size	
			1×1 Kan	3,094×3,101
Vertical direction	Y1~Y3 (3,149 3,101 3,622)	② Numaru	1×1 Kan	3,094×3,149

The outline of T-shaped jaceunsarangchae - 3:4
 Bang, Numaru - 1:1

26) 농월루는 유이주의 4대손 유건룡의 호로 1899년 철거되어 칸 모듈과 크기 등은 제외한다.

27) Kim, S. M., & Yoon, C. S. (2007).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Numaru built on the Upper-Class Houses in Chosun Dynasty: Focused on Youngnam Region. Proceeding of Annual Conference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7(1), 375. 누는 궁궐 내에서 집회와 연회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사찰에서는 종루와 고루, 대웅전 앞 중정을 형성하고 있는 누가 있었다. 또한 성곽의 누건축으로서 망루와 문루, 관원의 영송 및 의식, 연회와 유희의 용도를 지닌 관청의 누 그 외에 관망 및 지역의 상징물로서 중심역할을 하는 누정 등이 있다.

3:4, 2:3, 3:5, 1:2라는 7가지 중 네 가지에 해당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비례체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적 견지에서 보편적으로 지니는 공통된 미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Figur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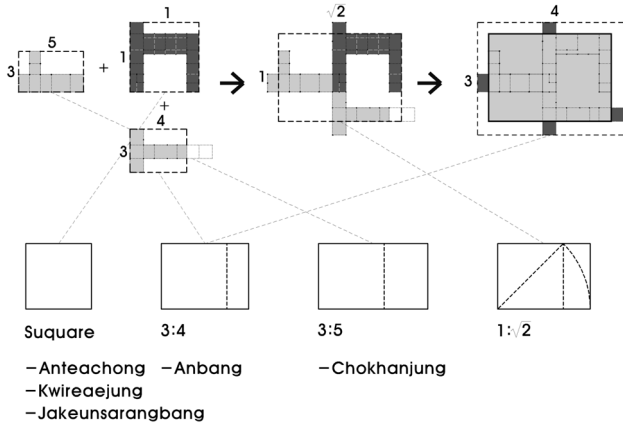


Figure 8. The Outline of Plan & Proportion Systems

3) 가구방식의 간소화

운조루 안목채의 가구는 5량 가구법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5량 가구는 기둥위에 대량을, 대량 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량을 얹으며 종량위에는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걸치나 운조루 안대청은 <Figure 9>에서 보듯이 전후평주 사이에 굴곡의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대공을 세워 5량가로 구성하였다. 즉, 대보위에 대공과 종량을 걸치는 일반적인 5량가의 방법과는 다르게 약간의 곡이 있는 대보만 놓고 5량을 구성한 것이다.³⁰⁾

그리고 안방의 가구방식은 내진주가 설치된 전·후면 평주와 내진주 사이에 퇴량을, 내진주 사이에는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대들보 상면에는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걸었다. 그리고 전·후 평주 위에 주심도리를 걸어 전체적으로 가구의 짜임은 5량가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량으로만 구성되는 운조루 가구방식은 대량과 종량으로 구성되는 5량가 보다 지붕높이가 낮으며 안대청에서 보여지는 연등천장의 몰매가 매우 완만하게 처리된다.³¹⁾

28) 정인국(1997). 한국건축양식론. 서울:일지사, 363 참조. 전국의 사찰, 궁전 기타 우수한 건물 45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면의 측면 대 정면의 평균비는 정확하게 $1:\sqrt{2}$ 라는 놀랄 만한 수의 관계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信憑할 만한 數値라고 기술하고 있다. Klaus-Peter Gast(1998). Louis I. Kahn The Idea of Oder. Boston:Birkhauser, 7에서 $1:\sqrt{2}$ 의 직사각형은 무한하게 이등분되거나 두 배로 되면서도 여전히 일정한 $1:\sqrt{2}$ 의 비를 유지하며 이런 황금직사각형(golden rectangle)은 사각형이 부가되거나 분할되어도 같은 비를 유지하며 이와 같이 공명하는 에너지는 가능성의 법칙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29) Ching, F.(1997). Architecture: Form · Space & Order. 황연숙(역). 건축의 형태공간·규범. 서울:도서출판국제.(원저 1979출판), 299.

30) 국립민속박물관 전라남도(1988). 구례운조루(민속박물관학술총서4). 광주:삼화문화사, 58.

31) 문화재청(2007). 구례운조루(중요민속자료 8호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대전:문화재청, 2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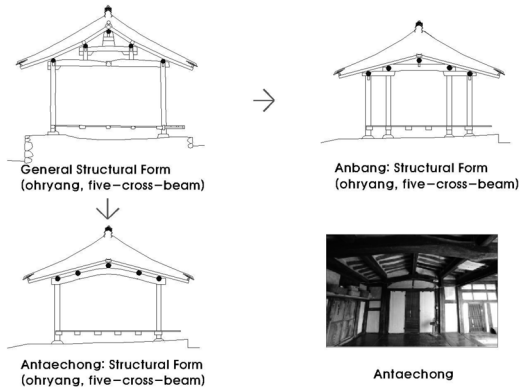


Figure 9. The Structural Form of Anmomchae (Ohm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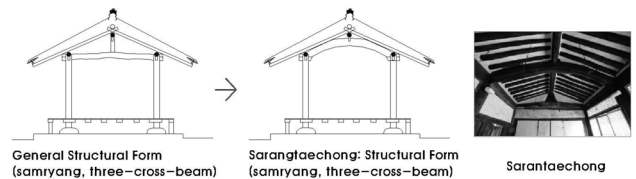


Figure 10. The Structural Form of Kensarangchae (Samyang)

운조루의 큰사랑채는 3량의 가구법을 취하였다. 일반적으로 3량 가구는 <Figure 10>에서 보듯이 평주 위에 대들보와 주심도리를 걸구한 후 대들보 중간에 판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설치하여 가구를 이루나 사랑대청의 경우 상부가 개방되는 연등천장으로 대공 없이 크게 휘어진 곡량을 대량으로 하였다. 이처럼 운조루의 가구법은 5량가임에도 종량을 얹고 대량으로만 구성한다든지 3량가임에도 대공 없이 휘어진 대량으로만 처리하는 등 일반적인 가구법을 간소화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4) 권위와 실용성의 표현

운조루의 지붕은 <Figure 11>에서 보듯이 안목채와 우측날개채가 만나는 부분①과 큰사랑채의 누마루 부분②는 팔작지붕, 중간사랑채의 누마루③는 우진각지붕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들은 맞배지붕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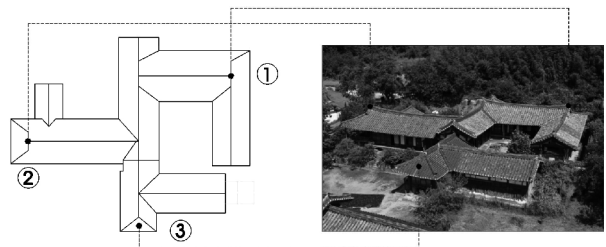


Figure 11. Roof Plan & View

전술한 바와 같이 안목채는 5량 가구, 큰사랑채는 3량 가구임에도 밖에서 보여 지는 지붕형태는 팔작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지붕용마루 높이는 안채 안목채가 가장 높고 안채의 좌우날개채와 큰사랑채의 용마루는 그 다음이고 중간사랑채의 용마루가 가장 낮다. 그리고 이것은

안마당으로의 남향 빛을 더 많이 유입시키기는 역할도 한다. 큰사랑채의 경우 중간사랑채와 3량의 가구방식으로 같음에도 지붕형태는 우진각지붕의 중간사랑채보다 한 단계 높다고 할 수 있는 팔작지붕으로 계획함으로써 장유유사에 따른 권위의 차별화를 반영하였다. 이처럼 안채와 큰사랑채는 가구법이 다름에도 지붕형태를 같게 하고 큰사랑채와 중간사랑채는 가구법이 같음에도 지붕형태는 다르게 처리하는 등 운조루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서열화를 건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여 진다. 진입부의 대문 레벨(±0)을 기준으로 큰사랑채와 중간사랑채의 기단레벨은 1,650 mm 안채의 기단레벨은 2,265 mm 이다. 이 같은 레벨 차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큰사랑채는 진입부에서 기단까지의 동선을 계단으로 처리하였으나 중간사랑채와 안채는 경사로로 보행동선을 해결하였다. 더 나아가 안채의 경우는 기단 자체를 경사로화 하여 계단을 설치하지 않았다<Figure 12>.



Figure 12. Stair & Ramp

이것은 상류주택에서 찾아보기 힘든 운조루만의 독특함으로 성곽건축의 경험이 있는 유이주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솟을대문과 마주하는 전면부의 큰사랑채 중심부에 계단을 설치하고 우측부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형태적으로는 큰사랑채의 권위를 한 단계 높이면서도 동시에 실용적인 측면도 강화시킨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운조루의 사랑채는 안채의 동북측에 위치하는 사당과는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면서 안채영역인 부엌과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조상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 위치가 안채의 동북측에 위치하고 이에 따라 사랑채도 동남쪽에 위치시켜 사당과 사랑채가 같은 방향에 세워지고 거리상으로도 최단거리에 두는 것에서³²⁾ 벗어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랑채는 부엌에서의 서비스동선이 단축되어 시중들기 편한 곳에 위치한 것이다. 이처럼 진입부에서 보여 지는 세 개의 누마루, 지붕의 위계적 구성, 솟을대문 등의 형태를 통해 운조루의 권위가 표현되었다면 가구방식의 간소화, 경사로의 도입, 서비스동선의 단축 등의 내부구조를 통해 주생활의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品’자형의 외부공간과 ‘占’자형의 평면형태를 지닌 구례 운조루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한 연구의 결과는 아래

32) 김광언(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서울:민음사, 88.

와 같다.

첫째, 운조루의 ‘品’자형은 풍수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운조루는 외부공간의 모양을 문자화함으로써 기존의 풍수적 문자형태를 지닌 상류주택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즉, 안마당의 협소함, 채광 및 쓰임의 문제 등을 해결하였으며, ‘ㄷ’자형 안채에 큰사랑채, 중간사랑채, 안사랑채 등을 전면부에 결합함으로써 형성된 ‘占’자형 평면은 당시의 남녀별, 세대별 서열화 등의 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더 나아가 주요 실의 남향 배치와 개방적인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평면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오미동가도(五美洞家圖)를 살펴보면 주인의 거처 실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큰사랑방이 가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솟을대문과 일직선상에 놓이고 큰사랑채의 누마루인 족한정은 주산인 형제봉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등지고 위치하며 안방은 안산인 오봉산 너머 조산인 계족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와 일직선으로 위치하는 등 주요 실의 위치가 주변 자연환경과의 상관성이 고려되어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큰사랑채와 안채 좌우날개채의 전면 기둥열이 운조루 전후영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占’자형 좌우평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안채와 큰사랑채 영역이 나뉘며 또한 동서북측의 각 채 길이가 서로 같은 기하학적 질서가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占’자형의 전체 평면윤곽비에서 각 채들, ‘ㄷ’자형의 안채, ‘丁’자형의 큰사랑채와 중간사랑채는 물론 각 채의 주요 실에 이르기까지 1:1, 3:4, 1:√2, 3:5라는 미적 수치의 비례체계가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권위의 상징인 누마루 즉, 큰사랑채의 족한정, 중간사랑채의 귀래정, 안사랑채의 농월루 등의 전면배치, 지붕의 위계적 구성, 솟을대문 등의 형태적 측면에서는 권위와 위엄을 표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구방식의 간소화, 계단과 경사로의 혼용, 서비스동선의 단축 등 주생활의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실용성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택의 문자형이 길흉을 예고하고 가문의 미래를 상징한다는 풍수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지는 ‘品’자형의 운조루를 배치, 평면, 구조 및 지붕구성 등의 설계적 측면에서 다루었다는데 의의를 지니나 일부 추론으로 접근한 연구의 한계도 지닌다. 이는 추후 운조루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연구영역의 접근으로 보완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1. 김광언(1998). 한국의 주거민속지. 서울: 민음사.
2. 김광현(1997). 오미동가도. 서울: (주)건축문화.
3. 국립민속박물관 전라남도(1988). 구례 운조루(민속박물관학술총서 4). 광주: 삼화문화사.
4. 국립목포대학박물관(1999). 구례군의 문화유적 전라남도 구례

- 군. 목포: 국립목포대학.
5. 김왕직(2008). 구례 운조루의 창건과 변천에 관한 연구(자료). 건축역사연구, 17(4), 181-194.
 6. 문화재청(2000). 안동 양진당 실측조사보고서(중요목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11호). 대전: 문화재청.
 7. 문화재청(2001). 안동 충효당 실측조사보고서(중요목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23호). 대전: 문화재청.
 8. 문화재청(2001). 관가정 실측조사보고서(중요목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21호). 대전: 문화재청.
 9. 문화재청(2007). 구례운조루(중요민속자료 8호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10. 문화재청(2008). 양동 서백당 기록화보고서(중요민속자료 제23호 기록화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11. 박영순 외(1998). 우리 옛집이야기, 서울: 열화당.
 12. 정인국(1997). 한국건축양식론. 서울: 일지사.
 13. Ching, F.(1997). Architecture: Form · Space & Order. 황연숙(역). 건축의 형태공간 · 규범. 서울: 도서출판국제(원저 1979 출판), 299.
 14. Chang, D. G. (2002). Decoding Korean Traditional High-class Houses in Youngnam and Honam Region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8(11), 125-132.
 15. Choi, S. Y., Kim, K. H., & Hong, D. H. (2001).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Unjoru showed in The Family hereditary Drawing. Oh-Mi-Dong-Ga-Do.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7(11), 133-140.
 16. Chong, S. H. (1987). *Geomantic principles of site design in upper-class houses of Chos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Yonsei, Seoul, 30.
 17. Jang, B. K., & Cho, S. K. (2001). A Study on the Meaning of Letter-Shaped House plan and the Housing principles of the Imchonggak in Andong.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10(3), 26.
 18. Kim, S. M., & Yoon, C. S. (2007).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Numaru built on the Upper-Class Houses in Chosun Dynasty: Focused on Youngnam Region. *Proceeding of Annual Conference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7(1), 375.
 19. Klaus-Peter Gast(1998). *Louis I. Kahn The Idea of Oder*. Boston: Birkhauser, 7.
 20. Park, I. S. (1998). A Study on the History of House in Gurye: Mainiy the literature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changes of the spac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4(2), 195-206.
-
- 접수일(2014. 7. 24)
수정일(1차: 2014. 9. 22, 2차: 2014. 9. 30)
게재확정일자(2014. 10. 8)